

鄭忠信 將軍 갑옷과 蔚山 二休亭 所藏
鳳凰紋緞 直領袍에 實施한 保存處理研究

裴 尚 慶

水原大學校 家政大學 衣類織物學科

**A study for the Conservation about the Armor of General Jung,
Choong Sin and the Chinese Phoenix-Patterned
Military uniform in IHYUJONG**

Bai, Sang Kyou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won Univ., Suwon, 445-890, Korea

□ ABSTRACT : This thesis researched for the conservation of a suit of armor that General Jung, Choong Sin had been worn in the 17th century, and of military uniform that was in perfect condition even though it had been underground for over 300years since 1676.

As the armor was made with silk and cotton, it was treated by the dry cleaning method and the mild charge system. In the dry cleaning method, the used solvents were n-hexane and n-decane. And the percentage of the dry soap was 2 in the mild charge system.

As the military uniform was made with only silk, it was treated by the dry cleaning method through the solvent of n-hexane and n-decane.

Armor was repaired by scoured hemp partially, but military uniform became too deteriorated seriously to repair.

1. 序 論

鄭忠信 將軍은 宣祖 9年(1576年)에 出生하여 壬辰倭亂때 少年의 몸으로 敵陣을 뚫고 權慄 將軍의 狀啓를 義州에 傳하고 李适의 亂을 平定하였으 며, 丁酉胡亂(1626年)때 公을 세우고 丙子胡亂 (1636年) 수 개월 전에 病死하였다. 文武兼全의 知將이었고, 그에 대해서 李恒福은 “이 사람이 만 약 갈을 던지고 冊을 대었으면 一世의 高士가 되 었으리라”라고 하였다 한다.

그 갑옷을 통하여 壬, 丙亂 당시의 갑옷을 상고 할 수 있었다. 重要民俗資料 제 36호로 1978年 6 月 21日에 指定되었으며 현재 소장자는 정종렬씨 로 忠南 瑞山에 모셔졌다.¹⁾ 위의 자료에 의하면 갑옷의 재질은 絹織物 二重으로 된 바깥 천과 여 러 겹의 綿織物로 된 心地가 바쳐 있었고, 肩鐵과 製豆釘, 앞 여밈의 고리로 사용되었던 종이, 가슴 의 부분 장식으로 여겨지는 자주색 가죽 등 여러 종류 의 섬유들을 사용하였으므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청동징이 많이 빠져 있었고 징에 푸른 녹 이 슬어서 일부는 녹을 제거하고 청동녹은 보호작 용을 하므로 대부분의 징들은 비교차 그대로 두었 다.

二休亭 所藏 鳳凰紋緞 長衣는 直領袍 형태로 1970년 경남 울산시 옥동에서 출토되었던 蔚山 李氏 天機 봉직량과 그의 婦人, 누이 동생인 文英夫 人의 壽衣 중 한 점이다. 이 직령포는 天機씨 부인 인 淑夫人 여흥 박씨의 유의로서 박씨 부인은 宣祖 38年(1605年)에 출생하여 玄宗 13年(1672 年)에 別世하였다. 1979年 1月 23日에 重要民俗 資料 第 37 號로 指定되었으며 현 所有者는 이채석 씨이고 慶尙南道 蔚山市 玉洞 二休亭에서 보관중

이다.²⁾ 이 유의는 매우 심하게 脆化된 상태로 천 자체가 직방형으로 잘려진 부분과 불에 누른 듯한 흔적이 있었다. 황갈색으로 원래의 색상보다 변색 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목판 깃에 쌍 쇄과 넓은 무 가 있다. 소매 길이가 짧아 반 소매 형태였으며 材 質이 너무 약해서 補修는 省略하고 洗滌 및 燻蒸 處理만 하였다.

2. 洗滌 및 補修 過程

2.1. 處理對象 遺依

2.1.1 鄭忠信 將軍 甲冑

鄭忠信 將軍(陰 1576年 12月 29日 ~ 1636年 5 月 4日)의 甲冑는 1630年(仁祖 8年) 5月 1日 수 군부원사로서 戎使 李曙와 함께 평북의 난을 平定 하고자 出征할 때 仁祖께서 친히 下賜하신 것으로 보인다.¹⁾ 바깥 천 중 겹감은 黃色 雲寶緞을 사용 하였으며 안감은 雲紋緞인듯 하나 남아 있는 부분 이 거의 없었고, 안 쪽의 心地로 사용된 천은 세겘 으로 너비 2.5cm로 누볐다.

袍制로서 團領에 直배라인 듯 하나 약간 둥글린 소매(진동과 수구의 차이가 약 4cm)와 겹, 안섶에 무가 있었다. 앞 가슴 부분에 자주색 가죽과 금색 견을 이용한 장식이 있었으나 거의 소실되어 흔적 만 남아 있고 종이를 풀어서 만든 단단한 고리 형 태의 여밈이 있었다. 肩鐵은 어깨 솔기 위에 박았 으며 철제 견장으로 상당히 무거웠으며 肩鐵 앞 부분에 경첩이 있어서 어깨와 목의 움직임이 편하 게 만들어졌다. 뒷 판 중앙에는 직경 5.3cm의 製 豆釘이 5개 박혀 있었고 옷 전체에 덧붙인 청동징 은 하단으로 갈수록 징 사이가 벌어졌으며 밑에 있는 징들은 갑옷 끝단에서부터 5.5cm ~ 6.0cm정 도 올라와 있었다. 청동징의 직경은 2cm이며 겨드 랑이의 바대는 손실된 채 흔적만 남아 있었다.

2.1.2 鳳凰紋緞 直領袍

약간 곡선의 직배래에 왼쪽 소매 진동과 수구간의 차이는 3.5cm이나 오른쪽 소매의 진동과 수구는 차이가 없었다. 목판 깃에 1cm로 박았으며 어깨 박음선이 없이 2.5cm가 속으로 접혀져서 들린 흔적이 있다. 결바대가 있으며 소매는 약 33cm로 긴 소매가 아니었다. 쌍선이 특징적이며 무 아래에 작은 삼각형의 작은 무가 다시 연결되어 있었다. 뒤 판은 형태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삭았으며, 중심선은 0.5cm 겹쳐서 박았다. 앞 판의 하단 부위는 직각으로 잘려 있었고 단의 시접은 1cm였다. 그리고 뒷판 중심 하단 부위에 다리미에 의해 눌린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2.2 處理過程

2.2.1 갑 옷

材質이 여러 種類이므로 單一方法으로는 處理가 어려웠다. 우선 n-hexane에 의한 dry cleaning을 常溫에서 2회, 10분간 處理한 후 n-hexane과 n-decane을 中량비(weight rate) 2:1로 혼합한 세척액에서 다시 2회 實施하였다. 이상의 處理過程에서는 絹纖維에 부착된 脂性汚染은 除去되지만 蛋白質, 血痕 및 水溶性汚染은 전혀 除去될 수 없다. 따라서 液比 1:10, 온도 35℃, Mild charge system을 實施하였다. 사용된 Dry soap은 Span계 + Tween계 계면활성제 40%, Alkylbenzenesulfonate와 mono, triethanolamine 축합물 각 25%, 15%, n-hexane + cyclohexane + benzene 20%로 만들었으며, Mild charge rate은 2%(weight rate)였다. 溶劑에 오래 放置하면 變形될 수 있으므로 단시간 내에 洗滌을 마친 후 깨끗한 n-hexane에 2번 행구고 두꺼운 백색 towel을 利用하여 용제를 除去한다. 이상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수는 3차 이온수였다. 肉眼으로 確認할 수 있을만큼 더러움이 상당히 제거되었으며 어느 정도 溶劑가 揮發되면 通風이 잘되는 그늘에서 乾燥시킨다.

갑옷에서 떨어져 나온 징들은 0.1N NaOH 수용액에 장시간(며칠간) 담근 후 더 이상의 변화가 없으면 超音波 洗滌器에서 나머지 汚染들을 除去하였다. 일부 除去되지 않은 汚染은 사포로 벗겨냈으며 대부분은 그대로 두었다. 삼베는 防黴性이 강한 직물이라 0.2% NaOH 수용액에서 정련한 후 징이 떨어져 나온 부분들을 떼우기 위해서 사용되었으며 징들은 다시 제자리에 박아 넣었다.

部分的으로 損傷되거나 터진 부분들은 삼베를 이용하여 部分 補修했으며 갑옷의 밑단 처리는 원 상태를 알기 위해 그대로 둔 부분도 있다. 갑옷의 트임은 옆, 뒤트임이며 뒤트임 부분이 저저분하여 염미 처리를 안하고 일단 연결하여 보수하였다. 此後에 복원품 제작이나 원형의 바느질을 研究할 경우를 위해서 다시 解體할 수 있도록 바느질 상의 여유를 두었다.

2.2.2 鳳凰紋緞 直領袍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脆化되었으므로 망사포에 싸서 처리하였다. 다행히 單一 材質(絹織物)이라 Dry cleaning으로만 처리하였다. 처음과 나중은 n-hexane으로, 두번째는 n-hexane과 n-decane을 中량비 2:1로 혼합한 세척액으로 실시하였으며 처리후 그대로 건져서 張力이 가해지지 않게 넓게 펼쳐서 陰地 乾燥시켰다.

2.2.3 燻蒸處理 및 保管

유물의 생물학적 손상 방지를 위하여 두께 0.15mm의 polyethylene vinyl film으로 완전히 유물을 밀폐시키고, 주입관을 연결하여 methyl

bromide와 ethylene oxide 혼합가스를 100g/m² 농도로 밀폐비닐 내부에 투약하여 72시간 훈증처리하였다.

그리고 훈증처리후 유물은 이축연신비닐필름으로 완전 밀폐 포장하고 내부에 불활성 질소 가스를 주입하고 특수보관용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하였다.

3. 考 察

1. 갑 옷

갑옷의 근원은 甲(갑옷)과 冑(투구)로 나뉘며 이 중 갑은 介라고도 한다. 그 원래의 뜻은 곤충의 鱗介로서 가죽, 금속, 종이 등을 재질로서 이용한다. 우리 나라의 갑옷은 중국으로부터 전해졌으며 중국의 갑옷 체제를 答襲하였다.⁴⁾

갑옷의 재질은 비단(緞), 豆錫, 鐵, 氈, 綿, 종이, 심지(이중솜)를 사용했으며⁵⁾ 안정성과 보온성을 위해서는 겉은 잘 찢지 않는 재질과 속은 따뜻한 재질을 사용했으며 방어용 철갑과 투구를 썼다. 재질의 종류에 따라 종이갑옷, 水銀甲, 皮甲, 柳葉甲, 鎖子甲, 鏡幡甲, 豆釘甲 등이 있다.⁶⁾

우리나라에 분산된 갑옷의 갯수는 50~60여점에 불과하다. 정충신 장군의 갑옷은 豆釘甲으로 본체에 징을 박은 형태이다. 水軍副元帥용으로 U자형의 깃에 합입이며 종이 고리를 사용했고 양옆, 뒤가 튀었으며 직배래였다. 겉감은 雲寶緞이고 심지는 무명 세 겹을 누볐다.

오염 및 얼룩의 형태로 보아 직접 전투에 참가했을때 입었으며, 겉감의 견직물이 너무 상해서 문양의 전체 모양을 알 수는 없었다.

갑옷의 실측도와 사진은 Fig. 1~3, Photo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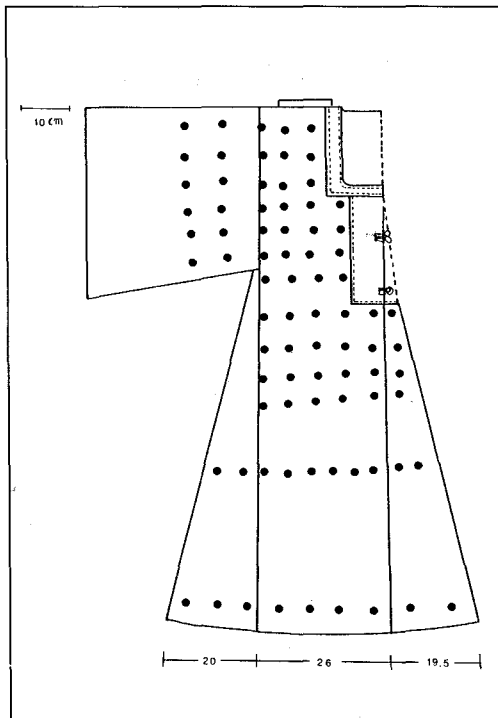


Fig. 1. Figure in the left side of arm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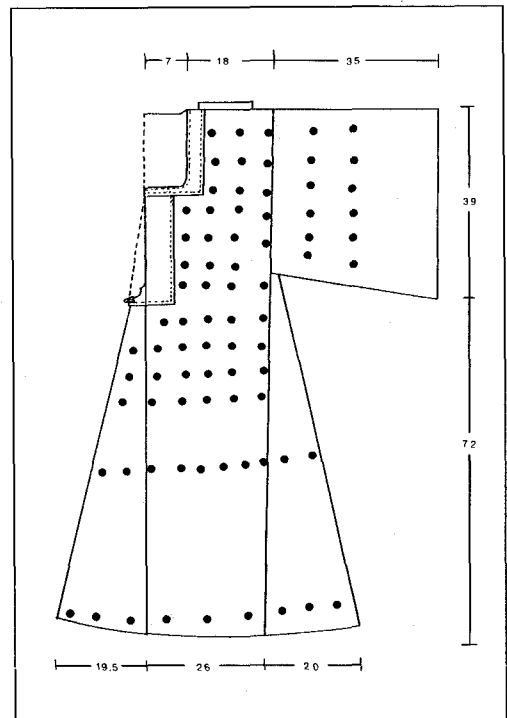


Fig. 2. Figure in the right side of arm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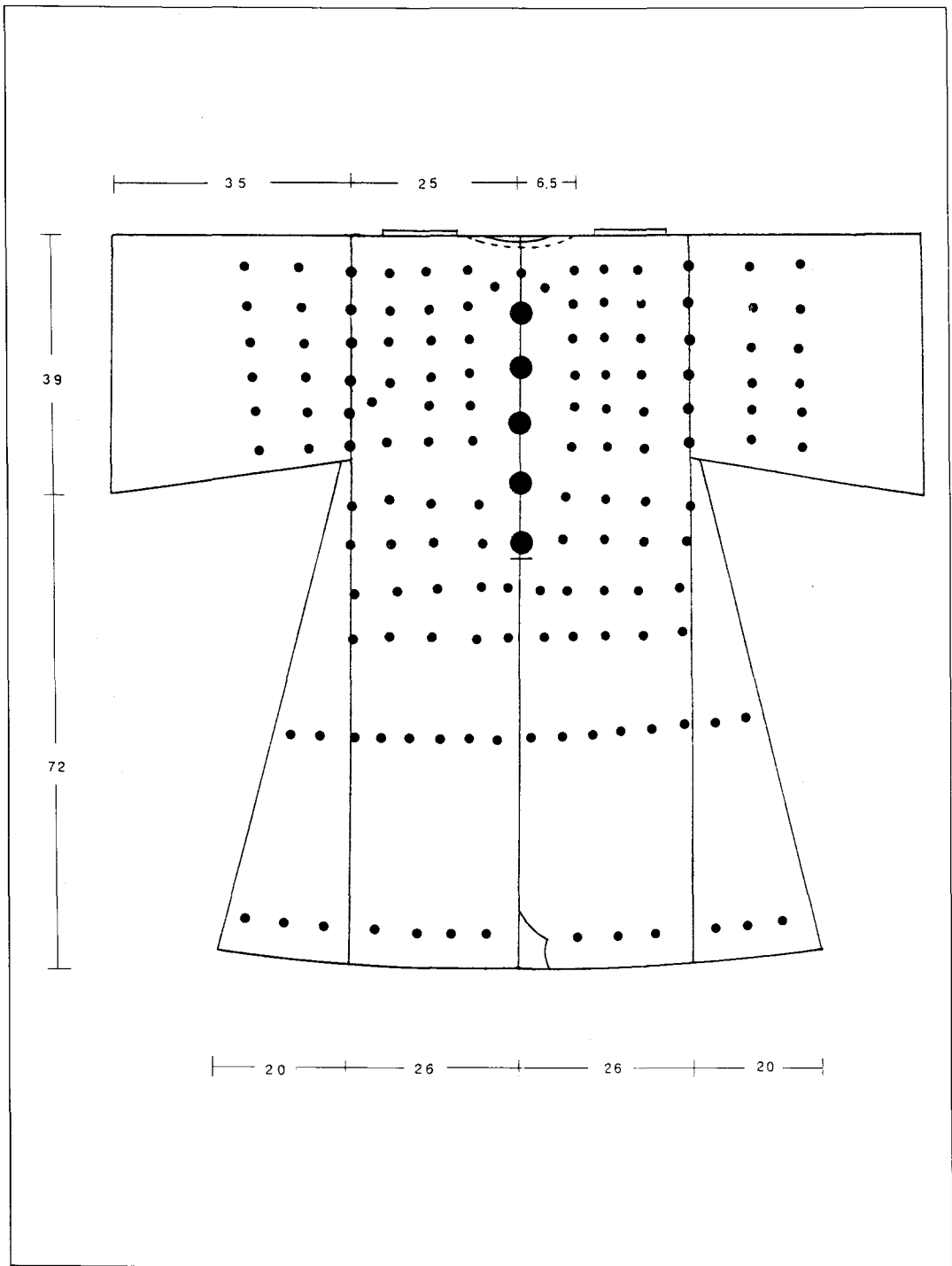


Fig. 3. Figure in the back side of armor

~2로 나타냈다.

2. 鳳凰紋緞 直領袍

깃은 목판깃으로 겹 깃과 안 깃이 같은 형태이며 섶 위에 놓여졌고 화장이 55cm, 수구가 안 쪽으로 0.5cm 접혀 있었다. 소매 길이는 짧은 형태이며, 직물의 문양은 鳳凰 한 쌍과 花문양이 섞였고

색상은 갈색으로서 원색이 어떤 색이었는지 분간 하기가 어려웠다.⁷⁾

출토 유의 중 直領袍들을 시대 별로 비교해 보면 우선, 16C. 출토 유의로서 荷堂公 金瞻의 명주 누비 직령포들이 있다.⁸⁾ 이들은 소매 끝에 삼수가 있었고 목판 깃에 겨드랑이에 삼각무가 있었고, 끝둥과 안동이 있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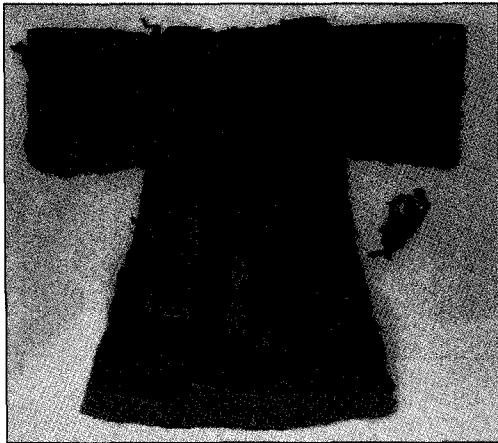


Photo 1. Picture in the front side of arm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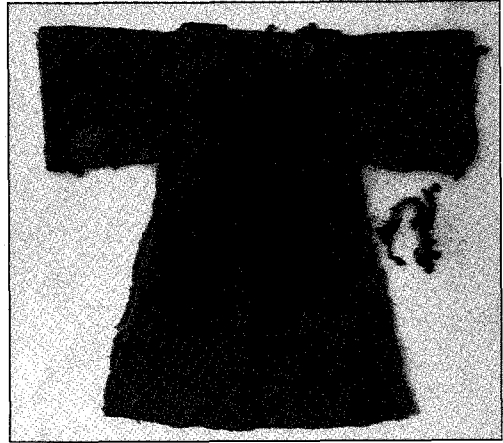


Photo 2. Picture in the back side of armor



Photo 3. Picture in the front side of military uniform



Photo 4. Picture in the back side of military uniform

17C. 출토 유의로는 洪禹挾의 홀직령이 있는데 진한 갈색의 평직 홀겹 견직물로 깃만 두 겹이다. 9) 파손 상태가 심하고 단령안에 끼워져서 출토되었다. 두리소매에 좁은 수구이며 길, 안설키 있다. 옆 트임과 무가 있었으며 길이가 짧아서 장의 형태의 포는 아니었다.

17C. 초중기의 또 다른 유의로는 驪興 閔氏(이조참판 정광경의 배위)의 직령포가 있다. 길 깃은 황색의 반달깃이며 안 깃은 목판 깃이나 깃의 펼친 형태가 직령에 속한다.

얇은 홀 겹으로 좌우 몸판에 각가 세 폭의 무가 연결되어 있으며 겨드랑이의 연결된 부분에 4cm의 트임이 있었다.¹⁰⁾

하당공 김점과 홍우협(홍)의 직령은 남자용이며 여홍 민씨와 이휴정의 직령은 여자용으로 약간 차이

는 있겠지만 대개 깃의 형태는 목판 깃이었고 삼각무가 있으며 소매의 길이는 차이가 있었다.

직령포의 실측도와 사진은 Fig. 4~5, Photo 3~4와 같다.

4. 結 論

鄭忠信 將軍의 갑옷은 豆釘甲 형태였으며 재질은 겉감이 견직물, 안의 심지는 면 세겹을 누벼서 사용하였다. 단일 재질이 아니므로 Dry cleaning 과 Mild charge system을 병용하였다.

부분 보수는 삼베로 하였으며 징의 처리는 녹 일부는 깎아 내고 대부분은 그대로 두었다.

鳳凰紋緞 直領袍는 유물의 보관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였다. 취화도가 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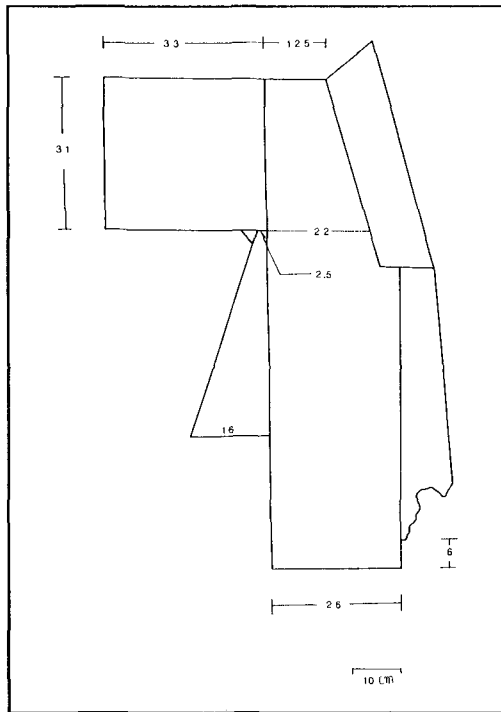


Fig. 4. Figure in the left side of military uni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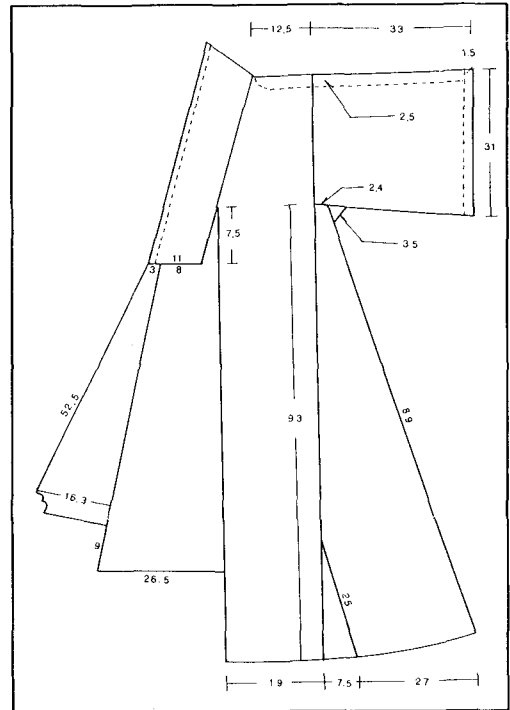


Fig. 5. Figure in the right side of military uniform

여 Dry cleaning만 하였다.

이축연신비닐 포장된 필름에 넣어 보관하고 있으나 소장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당국의 지도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다.

參考文獻

1. 김동욱, 고복남 : “정충신 장군 일괄유물”, 중요 민속자료 조사보고서 제 60호, 문화재 관리국 (1978)
2. 김동욱, 고복남 : “조선중기 출토복식(울산 이휴정 소장)”, 중요 민속자료 조사보고서 제 63호, 문화재관리국(1978)
3. 이미나 : “갑옷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2 (1983)
4. Ibid., 15
5. Ibid., 21
6. Ibid., 24 ~ 25
7. 유희경 : “중요민속자료해설”, 4 (1994) 미발간
8. 충북대학교 박물관 : “출토 유의 및 근대 복식 논고”, 17 ~ 18 (1987)
9. 충북대학교 박물관 : “홍우협 묘 출토 17세기 복식 논고”, 37 ~ 38 (1993)
10. 배상경 : “동래 정씨 홍곡공파 출토 유의 보존 처리 보고서”, 경기 향토사료집 제 5집, 23 (1992)